

## 사회

호남지역 고속도 교통사고 분석해보니

## 여름철 타이어 파손 주원인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결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호남 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의 12.5%가 차량 결합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 가운데 59%가 타이어 파손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이어파손 사고는 기온이 상승하는 5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휴가철인 8월에 가장 많았으며, 이 기간

동안 전체 타이어 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25t 유조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여 m 아래로 추락한 사고도 타이어 파손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날씨가 더위지면 타이어의 공기압이 10% 정도 상승해 손상·마모된 타이어의 약한 부분이 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공기압이 낮을 경우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 후 복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타이어가 변형되는 '스탠딩웨이브'(standing wave) 현상이 여름철 노면의 고열과 더해져

파손 위험은 더욱 커진다.

도로공사 전남본부 관계자는 "광상시 차량 탑승 전에 차량 주위를 돌며 타이어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여름철에는 타이어 공기압 체크가 꼭 필요하다"며 "100원짜리 동전을 거꾸로 타이어 훔에 넣었을 경우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보이기 시작하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행중 타이어가 파손되면 당황하지 말고 핸들을 꽉 잡고 차로를 최대한 유지하며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자연 감속시키면서 갈길로 이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놀이터 기생충 알 제거작업

광주 북구청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5일 문흥동 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경운기 등을 동원해 기생충 알을 없애기 위해 모래 뒤집기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대 개교 60돌

## 8일 용봉홀 기념식…조형물 제작·타임캡슐 묻기

전남대학교가 8일 오전 10시30분 대학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개교기념일은 6월9일이다.

전남대는 기념식과 함께 개교 60주년 기념 조형물을 제작·타임캡슐 묻기 행사를 진행한다. 기초과학특성화

과학관 옆에 세워질 60주년 기념 조형물은 '이래를 향한 빛'이라는 주제로 대학의 새로운 창조와 비전·도약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 지난 60년간의 물적·정신적 기록들을 담아 보관할 타임캡슐은 '전남대학교 역사관'이 들어서는 용봉관

앞뜰에 둘었다가, 개교 100주년인 2052년 6월9일 개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교 6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대학발전기금 현황관 제막식, 교직원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프로야구 단체관람 등이 계획돼 있다.

김윤수 총장은 기념식에서 "기존의 도그마(dogma)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인 메타(meta)로 나아가자"며 "전남대는 호남이라는 지역의 유타리와 국립대의 안식처를 벗어나 무한 경쟁의 체계를 갖추고 세계의 무대로 함께 가자"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앞뜰에 둘었다가, 개교 100주년인 2052년 6월9일 개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교 6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대학발전기금 현황관 제막식, 교직원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프로야구 단체관람 등이 계획돼 있다.

김윤수 총장은 기념식에서 "기존의 도그마(dogma)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인 메타(meta)로 나아가자"며 "전남대는 호남이라는 지역의 유타리와 국립대의 안식처를 벗어나 무한 경쟁의 체계를 갖추고 세계의 무대로 함께 가자"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앞뜰에 둘었다가, 개교 100주년인 2052년 6월9일 개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교 6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대학발전기금 현황관 제막식, 교직원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프로야구 단체관람 등이 계획돼 있다.

김윤수 총장은 기념식에서 "기존의 도그마(dogma)를 넘어 새로운 패

러다임인 메타(meta)로 나아가자"며

"전남대는 호남이라는 지역의 유타리와 국립대의 안식처를 벗어나 무한 경쟁의 체계를 갖추고 세계의 무대로 함께 가자"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 이달 하순께 장마 예고

## 무더위는 8일까지 이어질듯

방종(芒種)인 5일 광주·전남 지역의 기온이 30도까지 오른 가운데 8일 까지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달 하순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마가 예상돼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달 하순부터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인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평년(99~134mm)보다 많은 비가 내리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음달 상순에도 평년(77~109mm)보다 많은 비가 예상돼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강한 일사에 의한 지면가열과 따뜻한 공기유입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되다가 8일 중국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낮 22~24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게 되는 날씨가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금성, 태양면 통과 '우주 쇼'

## 오늘 오전 7시9분부터 금성일식 관측

현충일(6일) 하늘에서 금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보다 한쪽을 공전하는 행성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6일 오전 7시 9분 38초부터 오후 1시 49분 35초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금성이 태양을 가로지르는 '태양면 통과'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금성은 태양계 행성 중 지구와 크기가 가장 비슷한 행성(지구 크기의 0.95)이지만, 태양과 비교하면 위나 아래 태양 위의 점은 점처럼 보인다. 이런 '우주 쇼'는 쉽게 볼 수 없는 드문 현상이다. 1800년대 이후 1882년 12월 6일과 최근에는 2004년 6월 8일에 있었고, 다음은 105년 뒤인 2117년이다.

금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보다 한쪽을 공전하는 행성이다. 따라서 종종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만 금성이 공전 궤도와 지구 공전궤도는 약 3.4도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지구-금성-태양이 같은 방향에 있다 하더라도 매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번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태양 빛을 줄여주는 태양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쌍안경이나 천체망원경을 통해 직접 태양을 보는 것은 위험하다. 응접용 마스크 유리나 여러 겹의 셀로판지를 CD에 겹쳐서 보거나 은박지 등에 바늘구멍을 내 적당한 거리로 초점을 맞춰 흰 종이에 투영해 보는 방법도 있다.

/연합뉴스

##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 배포

## 시·도교육청 추진

시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 실태를 정기조사하고 교권침해 대응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보호 등의 학교문화를 담은 '2011~2012년도 교육·교권·교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5일 서명했다.

올해 주요 학의사항에는 교권보호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도별로 교권침해 실태를 정기조사하며,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학교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공립 대안학교와 특별교육기관을 확대하며 경찰청과 협조해 명예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오늘 날씨

해물 05시 18분 해진 19시 44분

달辱 21시 31분 달진 06시 56분

## 아침 안개 주의

아침 한때 안개가 끼고 구름이 많겠다.

광 주	맑음	19/29°C
목 포	맑음	18/26°C
여 수	맑음	19/25°C
나 주	맑음	19/30°C
완 도	맑음	17/27°C
구 레	맑음	18/31°C
강 진	맑음	17/28°C
해 남	맑음	17/28°C
장 흥	맑음	17/28°C
순 천	맑음	19/30°C
영 광	맑음	18/27°C
진 도	맑음	17/27°C
전 주	맑음	18/30°C
군 산	구름많음	18/26°C
남 원	맑음	17/30°C
혹 속	맑음	18/24°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자수
서해 남부 일비다	북서~북	0.5m	지역별
남해 서부 일비다	북서~북	0.5~1.0m	경기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서해 남부 일비다	남서~서	0.5m	목포
남해 서부 일비다	서~북서	0.5~1.0m	여수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목) 8(금) 9(토) 10(일) 11(월) 12(화)

날씨 20/28 18/27 18/28 18/28 17/26 17/27

최저/최고

기상본부 런던 올림픽 앞두고

료활 것을 권고했다.

영국은 2011년 1000여명, 올해는 3월까지 256명의 흥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런던 올림픽으로 각국의 관광객이 영국으로 집중될 상황을 감안하면 흥역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흥역은 유럽 뿐 아니라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에서도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 곳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도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연합뉴스

## 60세 이상 무료 안검진

## 동구, 지역 대학병원 연계

광주시 동구는 지역 대학병원 등과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안검진 사업을 펼친다. 동구보건소는 5일 한국실증예방재단과 전남대학병원, 조선대학원 전문의료팀과 함께 오는 8일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무료 안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진복무는 안저검사와 안압검사, 굴절검사, 각막곡률검사 등으로 검진 후 필요에 따라 돋보기와 안약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검진결과 백내장과 망막질환 등 안과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은 전액 무료로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동구는 안검진 사업을 통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실명 예방과 의료비 경감에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062-608-273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세기보청기

##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5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